‘보물’ 마애불 옆 채석단지 재추진 불교계 ‘공분’

삼표산업 7년만에 다시추진
반발 우려해 산림청에 신청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중
평가協 심의는 “제고” 의견
조계종 · 봉선사 반대 거세
“불교계 역량 모아 막을 것”

신성민 · 송지희 기자

㈜삼표산업이 지난 2013년 추진하다가 부결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 인근 채석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과 지역불교계는 “마애이불입상 인근 채석사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 파주시 등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파주 광탄면 분수리, 용미리 일원 임야 60만4738㎡를 추가로 채석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삼표산업이 추진하려는 채석장 인근에 보물로 지정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이 있다는 점이다. 삼표산업이 파주시를 통해 공람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회사 측이 추가로 지정하려는 채석장 예상 구획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과의 이격 거리는 260m로 영향 예상 이격 거리 500m보다도 가깝다.

발파 등을 통해 산을 깎아 돌을 캐는 채석장이 용미리 마애이불석불입상 인근에 들어설 경우 해당 문화재가 받는 피해는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 10월 마애이불입상으로부터 322m 떨어진 광탄면 분수리 208-14번지 일원 8필지를 채석단지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2015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해당 문화재의 안전성을 고려해 ‘부결’ 결정을 내려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지반사면이 경사져 있고, 지난 2014년 문화재특별점검 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는 ‘E등급’을 받은 상황이므로 불상 자체에 대한 구조 안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마애불과 신청부지는 하나의 암질로 이어진 위치로 작은 진동에도 도괴 등의 위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 역시 “경미한 발파 영향에도 훼손될 수 밖에 없는 마애이불입상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재 영향 평가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어 불허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이 추진중인 채석장 부지 인근에 위치한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서 인지 삼표산업은 이번 채석단지 지정을 산림청을 통해 신청했다. 30만㎡ 이상의 채석단지 지정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림청 소관임을 활용한 것이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는 인허가 권한 없이 사후 관리만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인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산림청은 산림 개발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기업이 부서 간 행정 이행 차이를 인식하고 산림청을 통해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인근에 다시 채석단지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지역을 채석을 위해 발파할 경우 산허리가 잘려나가 수 천년에 걸쳐 형성돼 온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환경이 전부 파괴된다.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인근 채석단지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 삼표산업의 채석단지 지정 재추진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부서들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표산업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서 해당 사업을 ‘제고’할 것을 총괄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지난 2019년 9월 파주시에 공시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는 총괄의견을 통해 “한북정맥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채석단지로서 위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지구 내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사업 진행 시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며 백두대간 생태축도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본 사업은 제고돼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통보서는 마애이불입상이 채석단지 영향지역 내에 위치하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 수립을 하거나 문화재로부터 일정 반경 이상을 원형보존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표산업의 평가서 초안에는 허가 요청 구역을 10만㎡ 가량 축소하고 사면 녹화를 저감 방안으로 내놨을 뿐 뚜렷한 보존대책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조계종과 지역불교계는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고 향후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삼표산업 측은 문화재 훼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만약이라도 훼손될 경우 절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우리 선조들의 삶과 서원이 깃들어 있는 민족의 유산이다. 교구본사와 지역불교계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겠다.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도 삼표산업의 채석단지 지정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총무원 사회부장 성공 스님은 “석불입상과 채석예정 부지 간 이격 거리가 문화재보호법상 허용 기준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채석 발파로 인한 진동의 여파는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면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이를 토대로 훼손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장 오심 스님(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은 “조기에 사업을 저지할 수 있도록 종단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문화재청에도 해당 사업이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보존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석단지 재추진에 대한 삼표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못했다.

포스트 코로나 ‘장기기증’ 언택트 새바람 분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새해 SNS기증 등 활성화 방침

코로나로 대면기증 50% 넘게 감소
캠페인 별 목표달성 42.6% 불과해
SNS 및 유튜브채널 통한 홍보진행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2021년 새해 SNS 기증과 릴레이기부 캠페인 등으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장기기증 급감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기증 문화에도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월 11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를 적극 진행하여 비대면 방식의 장기 및 조혈모세포 기증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의 이 같은 방침은 코로나로 대면 기증 방식이 타격을 받은 데 기인한 것이다. 2020년 생명나눔 사업실적을 보면 장기기증 희망등록 2130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1478명에 불과했다. 장기기증만 본다면 당초 목표치인 5000명에 비해 약 42.6%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장기기증 캠페인이 지난해 1월부터 출입통제되며 무산됐고, 대학 봉사단 · 동아리와 협력해 진행되는 대학가 캠페인과 면허시험장 내 장기기증 캠페인 등이 영향받은 데 기인한 것이다.

캠페인 내 온라인 방식으로도 진행됐던 조혈모 세포의 경우 대학내 온라인 홍보와 기관 협약을 통해 진행됐고, 사후관리 다이어리 발송 등을 통해 2437명 목표에 약 60.7%를 달성했다.

‘생명더하기 행복나누기’ 온라인 캠페인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생명나눔은 먼저 온라인 홍보를 진행한다. ‘생명더하기, 행복나누기’를 캐치프레이즈로 온라인 장기기증 3000명 모집에 나선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국가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대면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홍보가 진행돼야 함을 절감했다”며 “유튜브 채널 개설과 인스타그램 챌린지 캠페인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한 대중 접촉을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3개 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살예방 생명존중 연극도 현장에서 못하는 만큼 학교 방송반 등을 통해 녹화 송출할 예정이다.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의 경우 오프라인 캠페인이 불가능한 관계로 기업과 협업을 통한 모집이 보다 확대된다. 한마음혈액원과 협업을 통해 헌혈카페 내 조혈모세포 안내부스가 설치되고 헌혈대상자에게 홍보가 진행된다. 동양생명, 예금보험공사 등 2020년에 참여한 기업과 함께 기업 차원의 동참 활성화와 기존 5만여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다이어리 제공도 꾸준히 진행된다.

일면 스님은 “그 소중한 마음을 어렵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여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대법 “결혼 군종장교 자격박탈 적법”

구랍 30일 해군장교 상고심서
파송 종단 현재 조계종인 점과
종단 제적 및 군당국 판단 존중

조계종이 파송한 군종장교로 임관 후 ‘혼인 금지 규정’을 위반해 결혼, 태고종으로 승적을 옮긴 군종장교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고등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구랍 30일 해군 군종장교 출신 김모 씨가 제기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1998년 3월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고, 2005년 7월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한 김모 씨는 임관 후 2014년 결혼했고 조계종이 2015년 3월 종헌 위반으로 승적제적처분을 예고하자 4일 뒤 태고종으로 승적을 옮겼다. 조계종은 이해 3월 승적 제적 처분을 했다.

파송 종단으로부터 승적이 박탈된 상태에서 해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는 2017년 4월 조계종 승적 박탈로 인해 군종장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의결을 했고, 같은 해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역 처분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지와 부적합 사유인 군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군인사법은 징계제도와는 규정 취지와 사유 등에 차이가 있고, 관계기관에 폭 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 특수성이 비춰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군당국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군종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에서 통합, 장로, 감리, 침례 등 10여개 교단이 편입한 기독교와 달리 불교는 조계종만 편입돼 있으며 소속 단체서 자격 인정한 사람이 군종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상담대학으로, 대승의 보살정신을 기초하여 기본, 심화, 전문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자기소외 등을 명상과 심리 상담 치유와 올바른 자아성찰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2020년 12월 ~ 2021년 2월까지 신입생 모집기간
대광사 종무소 접수 및 전화신청 후 입학원서 제출

■ 학 제 : 3년 6학기 과정 / 주야, 화·수·목
■ 교과배정 비율 : 이론70%, 실기30%
- 불교교리 30%, - 심리상담 40%, - 명상 30%
■ 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붓다의 깨달음을 천태법화의 수행관으로 편성한 공空, 가假, 중中 세단계를 점차로 닦아 삼제원융(三諦圓融)을 완성하는 단계로 구성한다.
■ 수 강 료 : 1학기당 17만원 / 기업 031 715 7000 / 사단법인행복명상
■ 수료후특전 : 명상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교 통 : 분당선, 신분당선 / 정자역, 미금역 3번출구 마을버스 1번, 2번,19번 / 오리역 7번출구 마을버스 19번

과 정	강의시간	교과목		자 격	전형요강
空 기본 (1년)	【화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불교개론(연기, 공) • 명상과 상담의 이론과 실제	1)자격심사 없음 (연령,학력,종교 불문) 2)명상과 심리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자	1차 : 서류전형 • 입학원서 • 사진2매 (반명함) 2차 : 면 접 대광사 종무실 접수
		2학기	• 명상(이론, 실기병행) • 사념처관법		
假 심화 (1년)	【수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 대승 반야사상	1)명상과 상담 1학년을 수료한 자 2)1학년이상의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취득한 자	
		2학기	• 성격심리학 • 유식과 명상		
中 전문 (1년)	【목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천태소지관 • 상담응용	1)명상과 상담 2학년을 수료한 자 2)정규 명상과상담 2년 과정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2학기	• 자비명상		
요 가	【화요일】 오전 10:30 ~ 11:50	• 테라피 재활 요가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접 수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30 Tel. 031)715-3000, Fax 031)715-3409 홈페이지 http:// www.daegwangsa.org